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5 :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 :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습니다(롬 4: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때 자신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가야 할 목표를 바로 설정하게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알 때 자신의 믿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근원 위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는가 대답해 보세요.

창세기 15 :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을 말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자신의 현재의 삶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뿌리가 있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끝내는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1.1 말씀에 대한 믿음은 말씀을 하신 분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다.

말씀에 대한 믿음은 말씀을 하신 분의 인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Gerhardus Vos 라는 신학자는 창 15:6 을 가지고 아주 잘 설명하였습니다

창세기 15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 때

히브리어에서 믿는다는 말은 AMAN 인데, 이 AMAN 뒤에는 전치사가 따라 나온다고 했습니다.

영어에서는 ⁶And he believed **in** the LORD;(KJV)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그가 믿었는데 여호와 안에서 믿었다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믿었다.

“믿음의 근원과 뿌리가 여호와다” “믿음의 근원과 뿌리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믿음의 근원과 뿌리가 여호와니, 흔들림도 요동도 없는 여호와니, 흔들림도 요동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말이 이렇게 전치사가 같이 쓰인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의 인격 안에 기원과 대상을 두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미래에 될 일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인격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¹.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믿음은 언약을 확고히 하려는 그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8 세기 믿음의 사도로 부리던 죠지물러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짚막하게 정의하였습니다.

¹. 구약 성경신학 Kaiser p.128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창세기 15 :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 :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1.2 믿음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인상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거는 일차적으로 말씀입니다. 느낌이나 인상은 그 후에 따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을 자신의 인상이나 느낌을 통하여 유지하려 해서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고 느낌이나 인상을 의지한 타락한 아담은 아브라함과 좋은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후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 : 17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이브는 죄없이 창조되었지만 사탄의 시험은 있습니다.

뱀이 다가와 우회적으로 교묘하게 시험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3 : 1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묻자 이브는 대답하기를

창세기 3 :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는 느낌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브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하자 뱀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창세기 3 :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 :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믿은 이브는 선악과를 따서 지신도 먹고, 곁에 서있던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있게 서지 못한 이브의 태도를 보십시오.

창세기 3 :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브는 죽을까 하노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브는 죽을까 하노라 하는 자기의 느낌에 믿음을 두었습니다.

자기의 느낌과 인상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일기가 좋을 때는 느낌이 좋고, 환경이 나쁠 때는
느낌이 나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나 보십시오.

창세기 3 :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느낌과 인상에 의해 타락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을까 하노라 한 자신의 느낌이나 인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에 기원과 대상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기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담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열악한 경우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백세가 되어 할아버지입니다. 아내 사라는 쪼그랑 망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로마서 4 : 19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 :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건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 :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 :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로마서 4 :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환경을 이긴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거기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뱃장이 나옵니다. 환경이 무어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담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성령이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굳게 서니,

로마서 4 : 19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 :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로마서 4 :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 : 22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 세가 되고 자기 아내의 나이가 99 세가 되어 도저히 생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었습니다.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생산하는 힘을 얻어 100 세가 된 노인과 99 세의 할머니가 이삭을 생산한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친구라는 영광스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이 어떻든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요 믿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지탱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 :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 :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하여, 풍랑은 가라 앉고 맙니다. 갈릴리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사나와도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립니다.

지금 여러 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의 한파가 여러분의 가슴을 열어 볼게 만들고 있지는 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풍랑과 파도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슴 속에 나의 전능한 말씀이 있느냐?

너를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환경이나? 내 말이나?

환경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면, 거둘 것은 두려움 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풍랑 위에서도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표적이 따라 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느낌이나 인상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들이 무어라 말한다 할지라도,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2. 다음에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믿음의 말씀은 어떻게 얻나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기도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은 기도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라가 백척간두의 어려움에 있을 때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은 왕이지만 비지네스에 있어서선 선명성이 희미한 유대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미워하신 바 되는 북왕국의 아합왕과 동맹을 하고 연혼을 하였읍니다(대하 18:1).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은 징계로(19:2)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로 쳐들어 왔읍니다. 미쳐 손을 쓸 틈이 없이 적군은 깊이 쳐들어 왔읍니다.

이 때 여호사밧은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모종의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읍니다.

역대하 20 : 3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전국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였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읍니다.

역대하 20 : 15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 : 16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 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 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역대하 20 : 17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과 온 백성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읍니다.

이튿날이 되어 여호사밧은,

역대하 20 : 21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끄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적군을 치기 위해 군대를 정비하고 나간 것이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역대하 20 : 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역대하 20 : 23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역대하 20 : 24 유다 사람이 들 땅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기서 적군이 멸절된 것은 이스라엘 군사나 천군이 아닌 여호와께서 두신 복병과 자기들 끼리 싸워 멸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싸움에 임한 여호사밧 왕의 태도를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역대하 20 : 3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때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환경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을 땐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환경의 속박으로 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앞에서 취한 태도를 보십시오.

역대하 20 : 21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끄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파도는 어제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뱃장이 두둑해집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했습니다. 파도를 대하는, 풍랑을 대하는 내가 변했습니다.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달려드는 파도가 문제입니다.

변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먼저 나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이런 변화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태도를 보십시오.

역대하 20 : 20 이에 백성들이 일찌기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선지자가 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받은 신약의 성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차적 근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 닿으면 거기서 하늘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다는 담대함과 뱃장이 나옵니다. 환경이 무어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담력이 생깁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 :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기도 생활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데는 핑계가 없습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셔서 큰 믿음의 축복을 받아 복된 신앙 생활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